

안녕하세요 선생님



‘녹색의 전화’ 개설, 환경보전 운동에 앞장선 평민당 부총재

박영숙

인터뷰어 □ 신운정(텔런트)

어느덧 육순을 바라보는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
그의 지나온 세월은 인고와 투쟁 애환의 점철이었다.
30년 넘게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그가 최근엔 ‘녹색의 전화’를 개설, 죽어가는 자연을
되살리자며 우리 마음에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분신입니다

전행 □ 최경석 기자/사진 □ 백현우 기자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운명체

선생님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마침 주말이라 그런지 사물놀이패들의 신명나는 춤사위가 캠퍼스 곳곳을 수놓고 있었다.

오랜만에 모교에 오신 감회가 남다른듯 풀한 포기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길에 예사롭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내가 이 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 정말 많이도 변했군.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눈매에도 30년 넘게 인권운동에 몸 바쳐 온 인고의 연륜

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이화여대 영문과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YWCA에서 활동하신 선생님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직 등을 맡으면서 그간 ‘KBS시청료 거부운동’, ‘최루탄 추방운동’ 등 재야시민운동에 앞장서 오셨다.

87년 평민당에 입당, 부총재라는 중책을 맡으신 선생님은 최근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 상담실을 개설하고 환경보존운동에도 힘을 쏟고 계셨다.

“선생님, 녹색의 전화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요즘엔 옛날같이 앉아서 환경오염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 윤정이라도 들어서 알겠지. 환경오염 때문에 무더야, 기형아들이 발생하고, 강이나 바다에서도 흉칙한 기형어류들이 잡혔다는 얘기 말이야.”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뿐만이 아니야. 공기오염으로 인한 진폐증환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1만2천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아?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만 가는데 여자라고 해서 어떻게 나 몰라라 앉아만 있을 수 있겠어. 우리라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지. 녹색의 전화는 이런 환경오염의 피해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설한 거야.”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들만 보더라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우선 팔당호 골재준설현장만 해도 그래. 서민주택을 건설한다는 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문제는 건설부와 경기도가 서민주택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처의 참여 없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서 골재를 채취하도록 허가해 줬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수의 원천인 팔당호를 그렇게 무참히 파괴하도록 방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한심할 지경이야.”

정부의 처사가 못내 안타까운듯 혀를 차시는 선생님.

선생님께서서는 지난번 폭우때도 평민당 수해대책 위원장으로서 수해현장을 직접 돌아보셨었다.

“이번에 가장 피해가 컸던 고양군에도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천재였지만 독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분명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했지. 터진 독이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당국에



박영숙

1932년 평양 출. 평양정의여중, 전남여고를 거쳐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55년 대한YWCA연합회(2)사로 입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여성위원회위원장,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CCA) 여성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등 역임. 1985년부터 KBS 시청료기부운동, 부천시 성고문사건 투쟁운동, 최루탄추방운동 등을 벌여옴. 현재 평화민주당 부총재 겸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최근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 상담실'을 설치,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섬.

인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결국 이번 수해도 사람들이 환경보존에 소

신윤정

1970년 서울 출. 현재 단국대 연극영화과 1년 재학중. 1989년 MBC 미니시리즈 '모래성'으로 방송가에 데뷔, MBC 청소년드라마 '푸른계절'에서 현직역으로 고정출연. MBC 주말연속극 '행복한 여자'에서 호섭의 애인 애경 역을 거쳐 1990년 MBC 1971 텔리토로 입사 후 '조선왕조 5백년-강화도령'편에서 철종의 애인 양순 역으로 열연. 영화 '남부군'에서는 김영(최민수 분)의 애인 희나리(조영자)로 출연함.



하신 것은 언제였나요?”

“1955년 이화여자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자

“이번에 수해가 가장 컸던 고양군에도 다녀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상이 아닌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결과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말하자

서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거야. 게다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그곳에서 골재채취가 성행했다고 하거든. 아마도 이런 것들이 독이 터지게 된 직접적인 원

인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자연을 보존의 대상이 아닌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결과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야. 말하자면 사람들의 일방적인 착취에 대한 자연의 보복인 셈이지. 이제라도 우리는 자연이 인간과의 조화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해. 그런 의미에서 어찌면 이번 수해가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 84년 수해때 물에 잠겼던 수해상습지역인 서울의 망원동이 이번에는 철저한 대비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전화위복의 일례라고 볼 수 있지.”

선생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도 엄숙했다.

여성의 권익은 여성들 스스로가 찾아 누려야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을 시작



마자 곧바로 'YWCA'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됐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여성들을 위해 일해 오시면서 여성이 약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우리 여성들은 지금까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만을 돌보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경륜이나 의식면에 있어서 남성들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는 요즘엔 우리 여성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고, 또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여성들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

작년 89년은 우리 여성들에게는 획기적인 한해였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고, 12월에는 국회본회의에서 지난 37년간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됐지. 따라서 법에 규정된 남녀차별조항들이 대폭 삭제·수정됐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야. 물론 이 두 가지 개정안들이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윤정이 세대에 가서는 완전히 개선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은 사회가 육아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탁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릴거야.”

“하지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여성들의 지



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지. 있는 법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도 자기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깨우쳐야지. 법이 있으면 뭘 해?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걸.”

“그런데 선생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정계에는 아직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항상 남편과 아들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좀 날카로운가? 오죽하면 아들이 나를 혼계한 적도 있었을라구. 가족들 무서워서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지.”

**허리가 두동강난 땅에서
어찌 삶이 온전할 수가...**

천재였지만 독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분명 우리의 책임이야. 자연을 보존의 대 면 무분별한 인간의 착취에 대한 자연의 보복인 셈이지”



“정말 그래.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국회의원이래 봤자 고작 6명에 불과한데 그것도 지역구가 아니고 모두 전국구인 데다가 야당의원으로는 또 나 혼자이기 때문에 항상 외로움을 느끼곤 했어. 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왜 정계에서 유독 외면을 당해야만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여성들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커다란 모험에 속하지 않을까요?”

“물론 남성들도 밥짓고 빨래하는 게 서양처럼 일상화돼 있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까 모험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여성, 특히 주부가 정계에서 뛰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이해와 희생이 필수적이라고 봐. 내 남편(신학자 안병무 박사)과 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를 믿고 이해해 주니까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은 고향이 평양이라고 들었는데요.”

“응. 지금도 외가 쪽은 다 이북에 계시지.”

“얼마 전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통일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시겠어요.”

“아무렴. 국토가 두동강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윤정도도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우리나라에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치인들도 문제야. 오로지 자신의 입지를 위해 분단을 이용하려고만 드니 이산가족들만 애가 탈 수밖에.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지. 남북 상호간에 접촉공포감을 버리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수상의 말처럼 어서 빨리 정부차원의 만남에서 벗어나 남과 북의 민간인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텐데...”

선생님의 눈가엔 어느덧 두고온 고향의 산천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田